

이재용·이순자도 故이희호여사 조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 예물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유족들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은 다소 수척한 얼굴로 빈소에 들어섰다. 김홍길 더불어민주당 국립합동위원장도 어두운 표정으로 입장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가던 중 이

이재용,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장례식장 떠나

DJ와 이건희 회장 인연으로 조문 뜻 먼저 밝혀

이순자, 남편 간 악연 속에서도 마지막길 배웅

여사의 빈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 10시46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5분 남짓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떠났다. ‘어떤 인연이 있어 조문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 부회장을 배웅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삼성 측이 조의를 직접 표하고 싶다고 했다”며 조문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이 부회장은 없고 이건희 회장과는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이건희 회

장이 딱 맞았다”고 했다.

오전 9시52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조문을 왔다. 이씨는 고인의 영정 앞에 현화하고 묵념한 뒤 김홍업 전 의원과 작은 목소리로 짧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유가족들과 악수 및 인사를 나눴다. 동교동계 막내로 빈소를 지키고 있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씨와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고인의 남편인 김 전 대통령은 이씨 남편인 전 전 대통령과 깊은 악연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을 정치

적 위험으로 여겼던 전두환 신군부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1980년 5월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의원까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이 여사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과 아들의 한복 수의를 만들었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을 찾아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의 석방을 직접 청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치보복 대신 전 전 대통령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복권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부터 명절은 물론 전 전 대통령 내외의 생일에 빠짐없이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이씨는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를 통해 고인에게 존경심과 고마움을 표한 바 있다.

방명록에 글을 남기지 않고 빈소를 나온 이씨는 “안에서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했나”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 떠났다.

오전 9시55분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여분 동안의 조문을 마친 김씨는 “여사께서는 매년 1월1일이 되면 인사드리러 갔었다. 반갑게 대해주셨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려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동지였다. 또 여성 인권 신장에 한 평생을 헌신했다 가셔서 너무 애석하고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주귀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도 이 여사의 빈소를 찾았다.

주 대사와 함께 빈소에서 나온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주 대사가 유가족들에게 이 여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모였다. 한중관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준 점에 대해 깊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어제 왔어야했는데 대사관 사정 때문에 못 와서 죄송하다면서 조문하고 김홍업, 김홍길 두 유족 대표와 대화를 나눈 뒤 떠났다”고 설명했다.

주 대사는 주한중국대사로 부임하고 인사 차 동교동 사저를 찾았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수성·고건 전 국무총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등이 빈소를 찾았고 일반인 조문객들도 고인을 추모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青 “김정은 친서, 알고 있지만 그 이상 밝히지 않을 것”

공개 이전 전달 피약·준비 단계 파악 여부 설명 안해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질문이 있었다”면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기 이전에 김 위원장 명의로 된 친서가 미국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지,

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룸에서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과 만나 ‘방금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를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서한을 확실히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멋진 서한”이라며 “무언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떤 채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



국회의원은 언제 일하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2018년도 정부 부처별 성과보고서와 결산 보고서가 쌓여 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진통 이후 식물국회 변한 후 공전을 거듭하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은 뒷전으로 미뤄둔 상태다.

장제원, 황교안·나경원 공개비판…“제왕적 이미지 정치뿐”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 하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당 지도부를 향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리”고 쓴 소리를 했다.

장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 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라며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이고 누굴 위한 당이냐”며 “정말 싸우려고 한다면 결기를 갖고 뛰어들자”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TogeTther Gwangsan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음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